

2021 화성 예술가 활동지원 공모를 심의하며

2021.3.19.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사업소개 및 심의과정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화성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화성시 및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예술인의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플랫폼 및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예술지원 사업은 창작지원, 공간지원, 지역기반 예술 콘텐츠 개발지원 등 예술분야 특성을 반영, 장르에 최적화하여 설계하였으며 창작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예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을 종전 10%에서 올해 5%로 하향 조정했으며 예술인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여 대표자 및 본인 사례비를 인정하는 등 정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문학부문의 지원형식을 기존 교부-정산 형식에서 보상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문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지원을 확대하여 각 예술분야별 청년 예술인을 창작단계별로 지원,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 예술인에게도 예술지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담은 공모에 총 169건의 예술인·단체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대비 55% 증가한 신청 건수에 대한 대응으로 공연 예술 부문의 심의위원회를 2개로 분리 운영하였으며 각 예술 분야 별로 총 4개의 심의위원회(공연A, 공연B, 시각, 문학)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실 상황을 고려하여 되도록 더 많은 예술인·단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단체들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술지원팀은 예술지원사업의 핵심가치를 지원금을 배분하는 관리자에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관점으로 전환하고, 작품 중심에서 창작 주체인 예술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예술인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자립과 성장을 꿈꾸는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술지원팀은 더 나은 예술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요통계

○ 사업비(지원금)

(단위: 원)

예술분야	연도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지원금)	118,000,000	283,000,000 (+140%)	287,000,000 (+1%)	283,000,000 (-1%)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 예술분야별 지원신청건수

(단위: 건)

예술분야	연도			
	2018	2019	2020	2021
공연 예술	18	44 (+144%)	73 (+66%)	122 (+67%)
시각 예술	4	4 (+0%)	30 (+650%)	32 (+7%)
문학 등	0	0 (+0%)	6 (+0%)	15 (+150%)
총계	22	48 (+118%)	109 (+127%)	169 (+55%)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 예술분야별 지원신청액

(단위: 원)

예술분야	연도			
	2018	2019	2020	2021
공연 예술	134,520,000	613,383,000 (+356%)	838,875,400 (+37%)	1,265,401,535 (+51%)
시각 예술	30,895,000	30,000,000 (-3%)	333,038,200 (+1010%)	206,895,000 (-38%)
문학 등	0	0 (+0%)	42,000,000 (+0%)	70,100,000 (+67%)
총계	165,415,000	643,838,000 (+289%)	1,213,913,600 (+89%)	1,542,396,535 (+27%)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 심의 총평

○ 공연 예술 부문 A그룹(연극, 무용, 전통, 다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예술인을 독려하고 예술활동을 장려키 위해 추진한 본 공모사업에 지원한 응모서류 중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통과한 55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의 기준에 따라 1, 2차에 걸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주체의 역량 평가, 기획력 평가를 통해 심사위원 공통의 의견이 모아진 최종 1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한 개인예술가나 단체들의 평균적인 예술적 수준과 역량은 기대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이들을 놓고 제한된 자료와 발표 만으로 우열을 비교하여 일부 개인예술가나 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소액다건 방식으로 많은 예술가와 단체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단체에 예술지원의 기회를 확대해주고자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선정범위를 넓히기로 심사위원 전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화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 적절하게 조정하여 선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밝힙니다.

전체사업비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경우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 타기관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살펴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사전 지도와 중간 및 사후 평가를 통해 공모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증대시키며 사업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향후 선정의 적합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충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청년지원을 통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예술인을 배려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 예술인이든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술활동과 예술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술지원제도는 더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지속 보완하며 더 좋은 예술지원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김명호, 장선희, 정달영 (가나다순)

○ 공연 예술 부문 B그룹(뮤지컬, 클래식음악, 재즈, 대중음악)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이번 지원사업에 60건의 지원신청(행정심의 통과 후)이 있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뮤지컬 1건, 클래식음악 10건, 재즈 1건, 대중음악 3건 등 총 1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공연 예술계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위축되어 예술인·단체의 존립에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작년의 어려움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올해 예술지원 사업이 예술인·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번 심의에 제출된 자료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올해 예술지원 심의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있던 예술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공연 콘텐츠가 사업으로 제시되었고 뛰어난 역량과 재능을 가진 단체와 개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의 연주력과 기획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공연예술계의 미래를 밝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연의 내용과 사업진행 상의 구체적 방안이 모호한 예술인·단체도 있었습니다. 공연

이 어떻게 진행 될 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없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인건비의 항목들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공지원을 통한 예산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산출되고 조직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 산출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자가 예술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술지원의 공공성을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술 지원을 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예산을 조정하여 더 많은 예술인·단체가 예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범위를 넓혀 지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공연 예술인에게 어려운 시기 인만큼 한 건이라도 더 예술지원의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관점에서 이 최종 선정 결과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화성에 많은 예술인·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지원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지원 예산이 인구 89만명의 화성시의 규모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가 중심이 된 품격있는 화성시로 발전하고,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이 필요합니다. 화성시가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예술지원이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김순화, 신동원, 차태호 (가나다순)

○ 시각 예술 부문

화성 예술가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시각 예술 부문은 크게 두 개의 분류 - 예술 활동 지원(전시지원, 출간지원)과 화성특화지원(공간지원, 시민참여예술지원, 청년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각 예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 기획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각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4,200만원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좀 더 많은 작가들을 선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고자 선정에 있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과 작업에 대한 고민을 현대적으로 풀어가는 작가들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지역의 예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과 사업 목적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새로운 컨셉과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들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류 준비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수준 높은 작가 역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 예술 현장에서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던 작가들이 화성 지역에도 상당 수 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매우 희망적으로 근미래 화성의 문화예술생태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좋은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안적 활동, 실험적 예술 활동, 담론 중심의 공간이 적은 듯해서 해당 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결국 작가의 창작에서 공간과 전시를 통한 배포, 순환에 이르는 생태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도 해당 프로그램과 지역 미술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함께 무언가를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실험 정신과 열정을 가진 작가들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문화재단의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김성우, 전원길, 허진권 (가나다순)

○ 문학 등 부문

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서 문학 분야가 신설된 지 두 번째 해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창작지원금' 형식(정산방법 변경)으로 바뀐 점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문화재단에서 시행해온 관례에 따라 문학 분야 지원 제도는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왔지만, 문학·출판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출판사와 인세 계약을 통해 작품을 출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기존의 지원 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요 작가들이 지원 사업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지원사업부터 문학 분야의 지원제도가 현실에 맞게 바뀐 점은 지역 작가와 문학 환경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문화재단 실무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 응모작들을 살펴볼 때, 문예지에서 개인 창작집까지 그 장르 또한 시, 시조, 소설, 동시, 동화, 평론 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작가들의 활동 영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다양성'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작품성'과 그간의 '작품 활동' 역시 같은 자리에 놓고 눈여겨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응모작들은 각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저울에 올려놓아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전체 지원사업비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작가에게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매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은 언제든지 또 다른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문학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2차 면접심의 대신 집중심의 과정으로 대신했습니다. 문학 분야의 심사는 '작품'을 시작과 끝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과 면접 형식의 심사는 오히려 비문학적인 발상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의 전에 이런 불필요한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1차 선정작을 앞에 놓고 다시 한 번 고심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응모자 한 분께서 사업포기를 하셨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1차 서류 심의에서 탈락한 다른 작품을 올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원금을 배분하고자 했던 심사위원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별 신청한 지원금을 상회할 수 없는 규율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고려하다보니 차등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문학부문 최종결과는 작품의 순위를 매겨 선정액을 결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1건이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나머지 4건의 선정액이 개별 지원액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지원사업비가 부족한 점 등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개별 지원금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지원 선정작을 가리면서 지역의 여러 작가들이 저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독자와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심의위원: 김종광, 김태형, 서강목 (가나다순)

끝.